

서남대의대, 존폐기로... 국시 응시 불가

내년 신입생부터... 의학교육 평가결과 불인증 판정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내년도 입시부터 학생모집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서남대의대가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의학교육평가위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2018년도 신입생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의사·치과·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대에 올해 6월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남대의대는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받아야 내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 49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만약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남대의대가 시정명령 기간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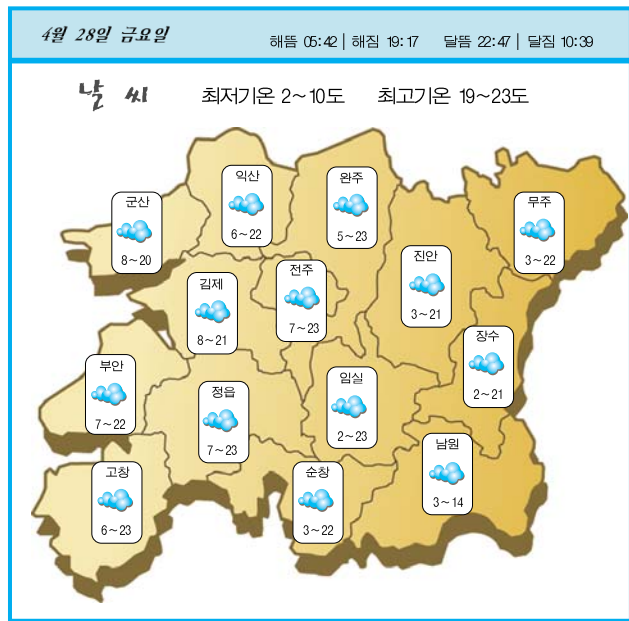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전주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7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2017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평생학습도시 전주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 입학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거듭된 파행 운영으로 내부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 교육부의 사해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유영철기자



고교생 '독서철학 성장프로그램' 5월부터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교생 1,2학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프로그램을 5월부터 운영한다.

희망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주군산익산의 거점학교에서 총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정해진 도서를 읽고 감상문의 특강, 학생 간에 토론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인문분과 자연분과 등 20명씩 총 14개 학급으로 나눠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14시~17시) 총 17주, 51시간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문분과는 통합 인문과정을 운영하고 자연분과는 수학과 과학을 기본과

정으로 운영하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계열을 교차할 예정이다.

또 3주간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문분야 10명, 자연분야 9명, 예술분야 1명 등 총 20명의 강사가 배치된다.

도교육청은 전체 수강생 중 1학년은 60%, 2학년은 40% 비중을 선발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 별도의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 학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체능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육청 주관 방과후학습 '하이클래스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 운영' 수료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전국대회 참가 18작품 선정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제39회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했는데 외부 심사위원의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를 통하여 5개 부문 수상 등급을 정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할 18작품을 선정했다.

예선에 875작품의 계획서가 접수되어 246작품을 본선 출품작으로 선정하였으나 본선에 출품한 2백37작품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이 18일부터 24일까지 서면심사, 25일 교육연수관 과학실험실 및 2층·3층 강의실에서 면담심사가 이루어졌다.

전국대회에 참가할 18작품은 생활과학 8작품, 생활과학 4작품, 학습용품 4작품, 지원재활용 2작품이다.

전국대회 출품작 18점은 전문가의 발명품 보완 및 과학적 원리 지도를 통해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한국창업학회 춘계 학회 개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활성화 방안 주제 정책 포럼 전주시 사회적 경제활성화 전략 발표·토론

한국창업학회(회장 한길석 전북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오늘부터 29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경영역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정태)와의 업무 협약과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정책 포럼 및 토론 그리고 공동행사로 전북 청년 창업의 다양성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오늘 오후 3시 이동한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창업대상 시상식이 먼저 열린다.

이날 시상식은 창업공로 부문에 금기현 한국창업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창조경영 부문에 여원동 에듀광 대표이사, 경영혁신 부문에 박종열 디아이텍 대표이사, 창업교육 부문에 박선영 건국대 교수가 각각 한국창업대상을 받는다.

이어 열리는 정책 포럼에서는 중앙대 김진수 교수가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김진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오후 1시부터 진수당

김광수홀에서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공동체, 도시 재생 연계를 통한 전주시 사회적 경제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분과별로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공동 행사로 진수당 로비에서는 전북청년 CEO 프리마켓도 함께 열려 실제 청년 창업의 다양성도 만나볼 수 있다.

한길석 한국창업학회장은 "이번 춘계 학술대회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승리사 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